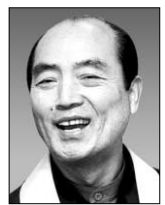


일 주 문



동해중 졸업생 5명 장학금
법공 총지중 총리원장은 20일 종립 동해중학교 제33회 졸업식에서 졸업생 5명에게 장학금 1백만원을 전달했다.



오계수지 수계식 열려
성열 서울 강남포교원장은 3월 3~7일 3층 수선당에서 오계 수지 대법회를 봉행한다. 수계식은 10일 오후 8시에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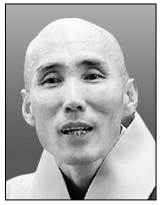
원주지역 화합 기원법회
원행 원주 구룡사 주지는 15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사부대중 1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원주지역 화합을 위한 기원 대법회'를 봉행했다.



삼광사 서예실 회원전
도원 부산 삼광사 주지는 24~26일 지관전 금강불교대학 강의실에서 제2회 삼광사 서예실 회원전을 열었다.



자비도량참법 참회기도
성중 서울 선학원 중앙선원 주지는 3월 6~15일 '자비도량참법 참회기도'를 봉행한다.(02)732-3327



원각선원 개원 대법회
성각 남해 망운암 주지는 27일 부산 대연동 시민선방 원각선원을 개원하고 고산스님 초청 개원대법회를 연다.(051)638-0116



무애재단 장학금 수여식
서둔각 무애재단 이사장은 8일 서울 불교방송국 3층 법당에서 제9회 재단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국제포교사회 정기총회
조우영 조계종국제포교사회장은 28일 오후 6시 30분 조계사불교대학 강의실에서 상반기 정기총회를 연다.(02)722-2206



서울시 재향군인 회장에
김병관 전 강동구 재향군인회장은 12일 국방회관에서 실시된 서울시 제25대 재향군인회장 선거에서 회장으로 당선됐다.



나눔의 터 일일주점 열려
황국근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 회장은 22일 카이저호프에서 청년포교를 위한 나눔의 터 일일주점을 열었다.



자비의 전화 정기총회
고경순 대구 자비의전화 대표는 17일 동화사 설법전에서 회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이사에
김모주 한국여성불교연합회 회장은 18일 열린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제46차 정기총회에서 상임위원인 서기이사에 선출됐다.



보건학 박사학위 받아
김태곤 아미타예술단 회장은 20일 경북 경산대에서 '음악이 건강 상태에 미치는 영향' 주제의 논문으로 보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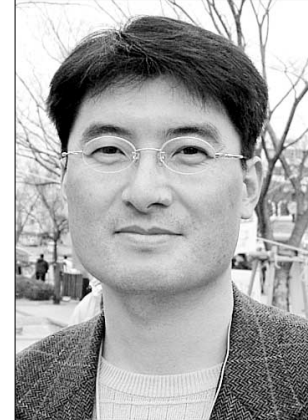
외국노동자협 공동대표
정진우 경블린 외국인노동자인권문화센터 부장은 10일 천안에서 열린 외국노동자협의회 총회에서 공동대표로 선출됐다.

지역불교 일구는 사람들 ⑦

손정현 (부산 중구 청소년의집 원장)

청년불교조직 활성화에 주력 청소년 흡사량 자원봉사단 결성

"대한불교산악회, 부산청년불자산악회가 산행과 불교를 접목시킨 자연스러운 포교로 효과를 거두었듯 앞으로 청년 불교 조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연구와 고민을 해나갈 것입니다." 최초의 전국단위 불교산악회 조직이었던 대한불교산악회 탄생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부산 중구 청소년의 집 손정현 원장(39·법명 무수)은 '불교의 밑바닥'인 청년 불교 살리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 "청년 불교 조직이외에 취재하며 활동 중인 사람들을 문제삼지만 그것은 문제의



위해 대법청 산하에 상설연구팀을 만들 계획이다. 3월 구체화되는 상설연구팀은 천주교, 기독교 등의 청년 활동과 재정 조달 방법 등을 비교 분석해서 불교에 적합한 포교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한다.

또한 몇 가지 청년회 조직 활성화 방안도 제시했다. 지역불교계 어른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도위원단 구성, 청년회 지회 확대를 위한 파라마다 직할 청년회 구성, 회원확보를 위한 인터넷 전법단 등이 그것이다. 또한 불교문화 그리기 모임, 불교동화 구연 모임, 문화답사회, 사찰순례회,

포교프로그램 개발 상설연구팀 계획

핵심을 놓친 것"이라고 지적한 손 원장은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을 통해 청년 불교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산의 신도대표기구인 부산불교신도회 사무국장을 7년 동안 지낸 손 원장이 신도회 산하에 '청소년 흡사량 자원봉사단'을 결성하고, 가족 산행을 불교와 접목시킨 것은 연령간의 고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그가 몸담고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장이기도 하다. 현재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손 원장은 급변하는 청소년 문화와 불교를 접목시킨 포교프로그램 개발을

불교 발명가 아카데미 등도 구상 중이다. 수행에만 전념하기 위해 부산불교신도회를 그만두었던 그가 다시 불교 활동 속으로 돌아온 것은 불교와의 첫 인연과 무관하지 않다.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학생 운동을 할 때, 세상을 바꾸기 위한 도구로 불교를 알게 됐죠. 그런데 이제 세상에 불교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산재한 불교를 사람들에게 알기 쉽게 전할 수 있도록 수행과 전법에 능한 청년 불교 조직을 만드는 것, 손 원장의 최대 수행 과제이자 원력이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올해 지역·직능별 동문회 조직

제11대 대불련 동문회장 성기태 교수



"올해로 마흔살인 장년 대불련의 총동문회장을 맡게 됐습니다. 이제 나이도 적지 않은 만큼 불교계 안팎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는 동문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일 열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 정기총회에서 제11대 회장으로 선출된 성기태(총주대 총장) 교수. 성 회장은 "올 한해 대학·지역·직능별 동문회를 조직하고 이들 모임의 분부 등록을 유도해, 총동문회 조직 활성화를 이루겠다"며 "이를 통해 침체된 대불

련 후배들의 활동을 앞에서 이끌어주는 역할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불련 동문회는 지난 40년간 정치·경제·문화·종교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뚜렷한 발자취를 남긴 인재를 배출했지만, 정자 동문들이 함께 하는 사업에서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성기태 회장은 "사무국 기능을 극대화해 동문회 홍보와 재정 확보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소그룹 차원의 동문 모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중앙과 지회간의 연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간수 정수일 씨 고대 강단에 시민방송서 이슬람 특강도



단국대 교수로 재직중이던 지난 97년 북한 공작원임이 밝혀져 복역했던 '무하마드 간수' 정수일(69)씨가 고려대 강단에 선다. 정씨는 20일부터 이번 학기 고려대 서양사학과에 처음 개설된 '서양사특강' 과목을 맡아 본인의 저서 <이슬람 문명>을 교재로 1주일에 3시간 학생들에게 이슬람 문명사를 강의한다. 정씨는 이날부터 위성방송 채널인 '시민방송'에서 '정수일의 이슬람과의 대화'라는 제목의 특강도 진행한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조직 개편·캠퍼스에 불교바람"

제41대 대불련 회장 박종찬 군



"최근 대불련 지회 지부가 감소하고 활동력이 떨어지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대학생 불자들이 활기차게 진행되는 대불련으로 바꾸겠습니다." 22일 대전 광혜사에서 열린 확대전국지부장단회의에서 제41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회장에 선출된 박종찬(원광대 전기공학 3년) 씨. 박 회장은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본부 조직을 개

편, 캠퍼스 내 불교바람을 일으키겠다고 말했다. "본부 조직 내에 상설적으로 운영되는 포교팀을 배치하고 새 시대에 맞게 인터넷 포교팀도 꾸릴 계획입니다." 박 회장은 이를 위해 3월을 학내포교 전진대회 기간으로 선포하고 전국 대불련 지회 지부가 포교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생각이다. 신행단체들과 연계한 회원 확보사업에도 적극 나선 방침인 박 회장은 2002년 대불련 의산지부장을 역임했다.

강유신 기자



야생조수 사랑의 먹이주기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 제4차 '야생조수 사랑의 먹이주기' 행사가 16일 지리산 뱀사골에서 열렸다. 학생과 자원봉사자, 주민 등 60여명이 참석한 행사에서 성덕스님은 "사람이건 동물이건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이 굶주림 때문에 고통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제불교진흥회 창립법회

김제불교진흥회 창립법회가 12일 김제 흥국사에서 개최됐다. 권두삼 김제 부시장을 비롯한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김재승(전 시위원) 씨가 회장으로 선출됐다. 지도법사로 선임된 우진 스님(흥국사 주지)은 "김제불교진흥회 불자들의 힘을 모아 어려운 이웃과 사찰을 돕는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화엄불교대·대학원 졸업식

화엄불교대학(학장 평상) 14기와 화엄불교대학원(학원장) 12기 졸업식이 8일 전북불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화엄불교대학생 40명과 대학원생 27명이 수료했다. 89년 설립된 화엄불교대학은 1242명 졸업생, 99년 설립된 불교대학원은 4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출강·통신) 2003학년도 제 12기 법사 양성을 위한

한국불교법사대학 신입생모집

본대학의 긍지와 품격은 불교사회적책무를 담당할 훌륭한 법사양성의 교육적 체계화로부터 그 면모가 입증됩니다.

12년의 역사와 함께 불교지도자로서 자격을 갖추고 법사활동을 지망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2003학년도 제12기 법사학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구 특 전

-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법위품수와 법사증을 수여함
- 사찰·포교원 개원 및 등록시 적극 지원함
- 종단에 출가 득도시 수행이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
- 법사불교신문 상임법사위원으로 위촉 및 추대함
-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상임법사로 활동할 수 있음
- 사찰법회 및 불교행사에 초청법사로 추천함
- 교도소,군법당 등에 포교활동을 적극 추천함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부설

한국불교법사대학

110-170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1 (견지빌딩 3층)
☎ (02) 720-1836 · 733-1959
Fax. (02) 737-5305
인터넷 http://pubsa.buddhism.org

우리 가족은 특별하다!!

가족을 사랑하는 특별한 방법! 지금 전화주세요!

“수신토종오가피 수신평사토종오가피”

국내최대 오가피 제매자 성 광 수氏

월드컵 축구대표선수들이 먹었습니다. 아시아게임 국가대표선수들이 먹었습니다. 직접 재배한 토종오가피만을 사용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국내최대오가피농장에서 생산합니다.

친사같이 소중한 우리 어린이를 위한 선물! 옛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오가피를 먹였습니다. 손주를 위한 할아버지의 고집으로 어린이들의 입맛에 맞춰 만든 - 수신평사 토종오가피. 우리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선택입니다.

이제 우리 아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수신평사 토종오가피를 준비해주세요.

지금 전화주세요.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드립니다.

(02) 447-2004